로컬플러스

정읍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정읍 시내버스 요금이 3년 만에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 임금 인상과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운송 업체 경영 악화에 따라 전북도가 요금 조정 용역을 시행한 결과 현재보다 214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하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과 버스 내부, 승강장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고생 20%, 초등학생 50% 할인과 함께 교통카드 이용 시 건 당 50원가 할인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중기 지원시책 설명회

김제시는 11일 오후 2시 김제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라북도, 김제시와 그 외 13개 기업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김제시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개별 기업과 1대1 상담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참석자에게 중기청 및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배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술·경영지원, 인력·근로지원,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매주 화요일 닭·오리고기 먹는 날 지정

정읍시가 매주 화요일을 닭과 오리고기 먹는 날로 지정, 본청 구내식당 점심 메뉴를 닭과 오리고기로 운영한다.

시는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양계 와 오리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일과 10일 제2청사와 본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으로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가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닭튀김, 닭볶음탕, 오리주물럭, 오리훈제 등의 닭고기와 오리고기 메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 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소방서, 시산제 지내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 산악전문의용소방대는 11일 진서면 구룡댐 암 벽장에서 소방공무원 및 남·여의 의용소방대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유년 시산제를 지냈다.

이날 시산제는, 제례 및 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를 통해 산불 예방과 산악사고 없는 한해를 기원하고, 이후 오찬 및 화합의 시간으로 서로 간 소통하며 결속을 다졌다.

행사종료 후 119구조대에서는 산악전문의용소방대원을 1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지킴이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했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에코드림, 정읍 첨단산단 입주

〈화장품 생산업체〉

시와 투자협약 체결 40여명 고용창출 기대

정읍시와 화장품 생산업체인 ㈜에코드림(대표 박용철, 이하 에코드림)은 11일 시장실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생기 시장과 박용철 대표는 이날 윤지섭 첨단방사선연구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코드림은 화장품(메이신) 생산업체로, 지난 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정병엽 박사팀) 연구팀이 잔디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 물질인 메이신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에코드림은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RFT 실용화동에 입주해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준비 작업을 추진해왔다.

에코드림은 협약에 따라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1만4천491㎡(4,383평)의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4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에코드림은 연구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이후 매년 국제 화장품 전시 등 해외홍보를 통해 메이신을 활용한 제조기술이 세계적 기술임을 입증해왔다.

에코드림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메이신 화장품 제조와 원료에 주력함은 물론 시화인 구절초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발전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한국화장품과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사 화장품을 세계적 상품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른 협의를 마무리하고 고품질 제조 생산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김생기 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읍으로의 투자를 결정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에코드림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3대 국책연구소,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년의 발전을 준비하는 원년"

부안군 신년인사회

부안군 2017년 신년인사회가 11일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됐다. 부안청년회의소(부안JC)에서 주관한 신년인사회에는 관내 사회단체장과 부안JC 특우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1부 상견례 및 부안관광 영상 시청과 2부 신년인사, 세배, 축하떡자르기로 순으로 진행됐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 만복의 고장 부안 실현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오는 8월 결정 되는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부안 새만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김종규 군수는 "지난 2016년은 부안 정명 600주년의 의미있는 해로 3년 연속 예산 4000억원 시대 달성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2017년 정유년은 부안 600년 역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천년의 발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중졸,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

관내 고교 진학생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

김제시와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김제시 중학교 졸업생 중 성적우수자가 관내 고교에 진학할 경우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의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급 신청은 부모가 1년이상 김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 중학교 성적 상위 15% 이내인 졸업생 중 관내 고교로 진학한 학생에 한하여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김제사랑장학재단(김제시청 인재양성과내)으로 하면 된다.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원제도는 중학교 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들이 관내 고교로 진학할 경우 2백만원을, 10%이내인 학생들에게는 1백5십만원을, 15%이내 학생들에게는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2007. 8월 설립한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인재 유출 방지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중 하나인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지원 제도의 영향으로 관내 고교 진학률이 70%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06명에게 6억4천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됐고, 올해도 관내 고교 진학생 50여명에게 7천여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본 사업은 지역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권재민 부안부군수가 백산면을 방문해 AI 방역 및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권재민 부안부군수, 백산면 농가 대상 AI 예방교육

부안군 권재민 부군수가 지난 10일 백산면을 방문하여 축산농가를 포함한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AI 방역 및 예방교육을 하는 등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권재민 부군수는 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철새도래지나 닭, 오리를 키우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외출 후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축산농가에는 매일 축사 내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군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권 부군수는 부안군은 주요도로인 동진대교 등 5개 지점에 거점 방역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안군 내에서는 관과 민이 합심하여 더 이상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청정 부안을 만들자고 말하였다.

한편 부안군 백산면은 동진강과 고부 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겨울철이면 철새들이 많이 찾는 철새도래지로 축산농가 11농가가 오리, 닭, 메추리 등 70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김제시는 올해 5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도시·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쉐어하우스(임대주택)사업 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쉼터·공동이용 텃밭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2017년 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신청을 2월 17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발생 증가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활용 우려에 따라 금년 도심권 빈집정비 사업에 도비 3천만원을 포함 1억원을 확보 건물주의 사용승락을 득하여 활용 가능한 빈집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으로 리모델링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 사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철거비용 지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텃밭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